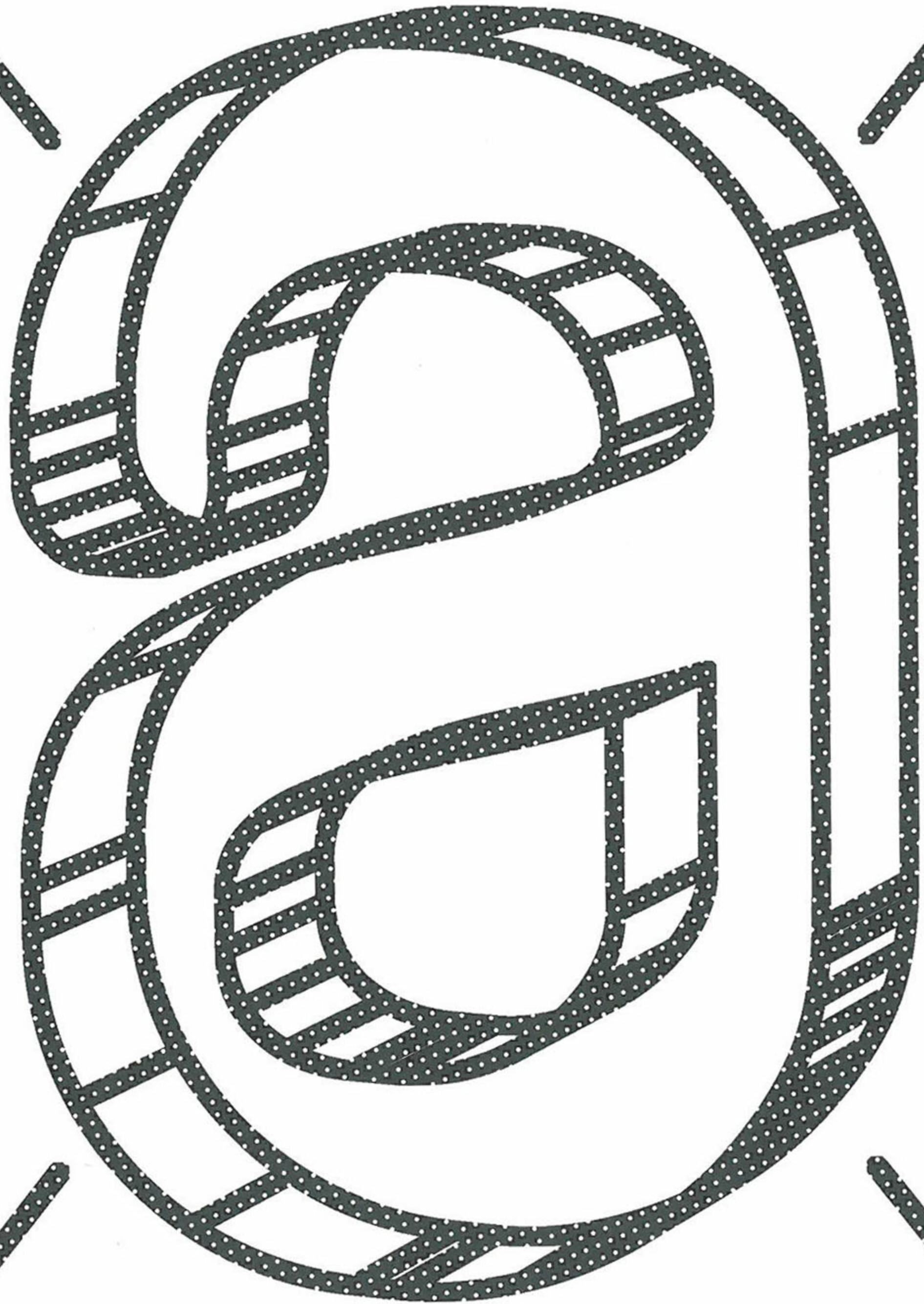


article

a journal of contemporary art
october 2013 issue #27

contains 20% art portrait; 25% art passage; 30% feature



SPACE OF HOSPITALITY

Public Art Archive

시각예술저널 경향 <아티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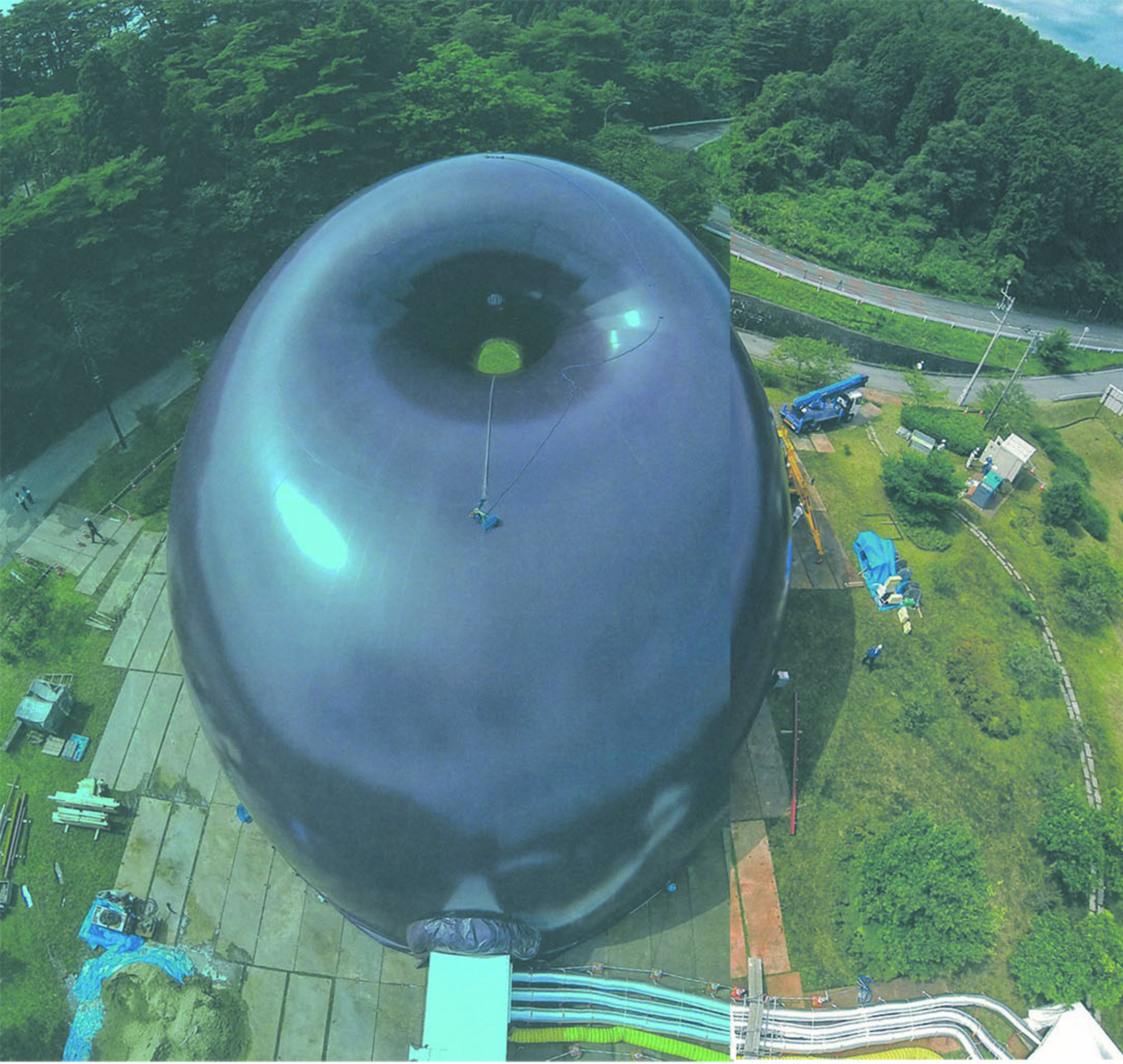
10,000원

10



772234 177001

ISSN 2234-1773



애니쉬 카푸어가 만든 희망을 실어 나르는 배

거대한 쓰나미가 동일본 토호쿠 지방을 덮친 지 2년을 훌쩍 넘어가지만, 여전히 그때의 충격과 상흔은 피해자들의 삶에, 또 그 아픔을 목격했고 기억하는 지구 상의 모든 이들에게 잔존해 있다. 그리고 그 상처의 틈 사이에서 예술가들은 피해자를 어루만지고 함께 이겨내려는 태도를 보이곤 한다.

애니쉬 카푸어(Anish Kapoor) 역시 그러한 예술가 중 하나다. 그는 최근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일본 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(Arata Isozaki)와 협업해 완성한 건축물을 세상에 공개했다. 바로 공기 주입식의 거대 이동식 콘서트 홀 '아크 노바(Ark Nova)'가 그것. 카푸어의 기존 대형 작품과 2011년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<모뉴멘탈(Monumental)>전에서의 <리바이어던(Leviathan)> 등을 기억하는 이라면 이 작품의 건축적 스케일을 쉬이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. 실제로 가로 30미터, 길이 36미터, 높이 18미터의 이 건축물은 최대 5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. 또한,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<리바이어던>과 유사하리라 여겨진다. 이 건축의 실체는 10월 15일 일본 마츠시마에서 열리는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확인할 수 있다. ㉞